



천주교 전주교구

전 동 성 당

주임신부: 남 종 기 고 스 마
 보좌신부: 김 건 솔 프 란 치 스 코
 수녀: 강 도 순 레 지 나
 수녀: 최 윤 희 글 라 라
 사목회장: 장 은 수 요 한

55044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51(전동) 사무실: 284-3222/ 팩스: 282-6232/ 애령회장: 010-8644-6007
 www.jeondong.or.kr / e-mail: jdcatholic@daum.net

| | | | | |
|------------|---|------|---------------------|-----------|
| 주일미사 | · 토요일: 오후 4시(순례자미사) 오후 6시(학생미사) | | | 전 동 메 아 리 |
| | · 주 일: 오전 6시, 9시, 10시 30분(교중미사), 오후 5시 | | | |
| 평일미사 | 월 ~ 토: 오전 6시 화 ~ 금: 오전 11시 | | | |
| 성 시간 | 매월 첫 목요일 오전 10시 | 봉성체 | 매월 셋째 수요일 오후 2시 | |
| 고해성사 | 미사 전 15분 | 유아세례 | 홀수달 둘째 토요일 오후 5시 | |
| 예비자 교리반 | 일요일 오전 9시~10시 | | | |
| | | | | |

「고향 회당에서 가르치는 예수님」



△ 그림: www.journeywithjesus.net

- ◎제1독서: 에제키엘 예언서 2,2-5 ◎제2독서: 코린토 2서 12,7-10 ◎복음: 마르코 6,1-6
- ◎화답송: 저희는 주 하느님을 우러러보며 당신 자비만을 바라나이다.

“사이비 신앙인”

1. 하루는 공자에게 그의 제자 자공이 묻습니다. “선생님, 동네 사람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러자 공자는 “좋은 사람은 아닐 수 있다.” 고 말합니다. 자공이 다시 “동네 사람 모두가 싫어한다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라고 묻자 공자는 “좋은 사람은 아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공자는 자공에게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동네의 착한 사람이 좋아하고, 나쁜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만 못하니라.” (『논어·자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고 인정받으려는 사람을 공자는 향원(鄉愿), 즉 ‘덕을 흉치는 도둑(鄉愿德之賊也)’ 이라 부르며 경계하였습니다. 향원의 문제점은 매사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원은 덕이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 그럴지 않은 사이비(似而非) 유덕자인 것입니다.

2. 오늘 1독서에서 하느님께서서는 에제키엘 예언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이 들든, 또는 그들이 반항의 집안 이어서 들지 않든, 자기들 가운데에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만은 알게 될 것이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고향 사람들로 부터 냉대를 받습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지혜를 전하고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권위를 고향 사람들은 인정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서는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고 말씀하시며 고향을 떠나십니다.

에제키엘 예언자도, 예수님께서서도 사람들의 안색을 살피고 시류에 영합하며 사셨던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안색에 상관없이 당당하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분들이 예언자들이었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분들의 삶은 사람들의 배척 속에 고달팠지만 마음은 늘 하느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안색을 살피 하느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덕을 흉치는 사이비 유덕자, 사이비 신앙인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지혜문학: 삶의 지혜를 전해 주는 성경의 책들 ④(욘기 1)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욘기를 알아봅니다.

욘기는 “우츠라는 땅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욘이었다” (욘 1,1)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욘이라는 인물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느 시대 사람인지도 모르며, 우츠라는 지명 역시 어딘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고대 동방의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욘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욘은 히브리인(이스라엘)이 아닌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으며, 우츠는 이스라엘 땅 밖이기에 욘기의 배경 자체는 이스라엘 밖이라고 추론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욘기의 저자는 왜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이름의 어원으로나 뭐 하나 분명한 것이 없는 욘이라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웠을까요? 그것은 욘기가 다루는 주제가 특정한 시대와 장소, 하느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욘기의 주제는 ‘인간의 고통’ 입니다. ‘인간의 고통’이라는 주제 자체는 욘기만이 아닌 성경 밖의 지혜문학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욘기는 인간의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지, 왜 세상에 고통이 있는지, 무죄한 사람이 왜 고통을 당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느님께 대한 믿음의 이유’를 찾고자 합니다.

“욘이 까닭 없이 하느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욘 1,9)

욘의 적대자로 나오는 사탄의 이 질문은 욘기에서 전개되는 모든 사건의 발단입니다. “까닭 없이”, 곧 어떤 이유나 보상이나 목적 없이 인간이 하느님을 신앙할 수 있을까요? 상선벌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일 때, 인간은 하느님에 대해 어떻게 말할까요? 의로운 사람이었던 욘이 겪는 고통은 욘으로 하여금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욘은 자신이 겪는 고통 가운데 하느님께 어떤 답변을 받았을까요? 이에 관한 욘기의 전반적인 내용과 결론은 다음 주에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난한 나라를 위한 교황님과 함께하는
'백신 나눔 운동' 참여자**

| | | | | |
|---------|---------|----------|---------|----------|
| 강명숙세실리아 | 김일부베드로 | 서성자소화데레사 | 윤이순마르타 | 장현숙세레나 |
| 강신타마르티노 | 김정수미카엘라 | 소병훈요셉 | 이경자도미틸라 | 정순조희순루시아 |
| 고성수요아킴 | 김정옥안나 | 손주경니콜라오 | 이귀자수산나 | 정윤순데레사 |
| 구옥숙아셀라 | 김종임누비나 | 신복자아나다시아 | 이금이마리아 | 조금원세라피나 |
| 권영례데레사 | 박문석요한 | 안득수마리오 | 이복영안젤로 | 조영순마리아 |
| 김금레이파 | 박순애데레사 | 양형란유스티나 | 이현정게루피나 | 한미라프란체스카 |
| 김문식베드로 | 박옥선율리안나 | 엄복임엘리사벳 | 익 명 | 황부덕모니카 |
| 김미희로사 | 박해종베네딕도 | 오준남소화데레사 | 임영자데레사 | |
| 김숙희베로니카 | 백금례루시아 | 유점용베드로 | 장숙자실비아 | |

| 송철 옛날국수공장 | 일송정 (갈비명가) | 최복순쌀상회 | 전주 농약사 | 하늘해외여행사 |
|---|---|---|---|---|
| 3대를 이어온 국수명가 송현귀(요한) 최금호(요안나)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 서로 137-5(남부시장 건너편) ☎284-1908 H.P. 010-8951-2208 | 갈비탕, 옛날갈비찜, 갈비전골 명품한우전문 김문식(베드로) 심 데레사 완산구청 사거리(중산초방면) ☎223-9393 H.P. 010-3653-7853 | 쌀, 잡곡, 소금일절 김동주(바오로) 장현숙(세레나) 전주시 남부시장내 ☎284-3194 H.P. 010-3675-3194 H.P. 010-8627-3713 | 농약, 종자, 모종, 농자재, 묘목 황인수(요한) 김호순(루치아) 전동성당 건너편 버섯정류장 ☎287-4900 H.P. 010-8239-4348 | 성지순례 해외여행 전세버스 최석재(스테파노) ☎286-9595 |

| 동래분식 | 남문&mail.남문연구센터 | MG남부새마을금고 | (유) 쿡뱅크 | 풍남정 |
|---|--|---|--|--|
| 새알팔죽, 팔갈국수, 손수제비 남부시장내 30년전통, 30년달음집 양명구(다비드) 이정미(세실리아) ☎288-4607 H.P. 010-3672-0186 | 문구문화, 문구중심, 문구생활 원수관(아고버) 심경이(마리아) 전주시 보건소 옆 ☎283-3352 | 본점(남부시장) ☎283-7611-3 학산지점(평화동) ☎283-7614-5 홍산로지점(효자동) ☎286-7616-7 이사장 이경춘(마르첼리노) H.P.010-3659-1907 | 그릇대여업체 장순문(프란치스코) e-mail: jsm1605@naver.com H.P.010-7657-1606 ☎284-1606 | 전주전통비빔밥 불낙전골, 떡갈비 전문점 박래연, 이현숙 전동성당 후문 H.P.010-3680-2756 ☎282-8754 |

전 동 계 시 판

● 오늘은 제대 꽃 봉헌의 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른 교구지침 (7.1.부터 시행)

1. 미사 참례시 전체 좌석수 대비 50%(약 220명)
(단, 백신접종자는 입장 제한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2. 제단체 모임(레지오 포함) 실시
(단 14일까지 8인까지 모임 가능)
*모임참석시엔 미사때와 마찬가지로 마스크착용, 발열 체크, 손소독제 사용, 인명록 작성은 필수사항입니다.

■ 예비신자 연중 모집: 예비신자 모집에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일정 인원이 모이면, 주일 오전9시 교리반을 시작합니다.

■ 유아세례: 7/10(토)17:00, 대성전
*사무실에 7/6(화)까지 신청바랍니다.

■ 2022년도 혼인미사 예약접수: 내년도 혼인성사를 희망하는 교우는 타 본당교우 포함 선착순 접수중이오니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 주교님과 함께하는 조부모와 어르신의 날 미사
*7/25(주일)09:30 치명자산 평화의 전당
*대상:조부모와 함께 하는 가정 (선착순20가족)
*신청마감:7/18(주일), 문의:063-285-1031

가난한 나라를 위한 교황님과 함께하는 '백신 나눔 운동' 참여방법

1.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본당 사무실을 통하여 성금을 내시면 되고, 비신자도 참여 가능합니다. (연말 기부금 영수증 발급)
*계좌입금: 전북은행 1013-01-3079726 천주교유지재단
2. 형편에 따라 성금 액수는 자유로이 하실 수 있으며, 참고로 두 차례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금액은 약 6만원입니다.
3. '백신 나눔 운동' 참여 기간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이 종료되는 올해 11월 27일(대림 제 1 주일 전날)까지입니다.

■ 첫순교터 후원회원 현황

| | |
|--------------------|----------|
| 첫순교터 후원회원(7월2일 현재) | 587 명 |
| 후원회원 목 표 | 10,000 명 |

우리들의 정성(6월21일~6월27일)

주일헌금: 3,697,000 교무금: 2,682,000

교황주일 2차 헌금: 1,458,700

| | |
|------|------------------|
| 의 명 | 50,000 |
| 감사헌금 | 오문술(바오로) 200,000 |
| | 강정순(아네스) 150,000 |

※ 교무금 자동이체 계좌:
신협 134-001-130673 천주교유지재단

★첫순교터 후원회 회원모집★

| | |
|---------|--|
| √ 회원구분: | <input type="checkbox"/> 정회원(월 1만원이상 납부) <input type="checkbox"/> 특별평생회원(일시불 100만원 이상 납부) |
| √ 납부방법: | <input type="checkbox"/> 직접납부(사무실) <input type="checkbox"/> 계좌이체 <input type="checkbox"/> CMS 후원신청서 작성 (계좌번호: 신협 131-019-740164 / 예금주:(재)천주교유지재단) |

| 정창희 정형외과 | 수진가 약국 | 가은노인복지센터 | Roastery cafe Soul & Design Soul | 남 창 당 한 약 방 |
|--|---|--|---|--|
| 뼈, 관절 물리치료실 의학박사 전문의 정창희(안셀모) 이성숙(안젤라) 전동성당 건너편 ☎284-2926, 288-1625 | 약사 이현명(사도요한) 약사 신지현(베르베우아) 중앙성당 인근 (구한양예식장) ☎272-8066 | 주·야간보호,요양시설 내집처럼 내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한삼숙(베로니카) 김정민(데레사) 대성동 고덕산장 부근 H.P.010-3621-6007 ☎282-9241 | 디자인과 커피가 공존하는 Soul 서승희(클레멘시아) 조성휘(안 드 레 아) 진버들6길8-10(아중리) H.P. 010-2747-0989 H.P. 010-3683-0050 | 전통한약방 제1호 인증 원장 한광수 전동성당 맞은편 한옥마을 입구 H.P. 010-3653-8586 ☎284-8586 |